

■대한조선 해남조선소 벌크선 첫 진수

# 17만급 위용 ... 글로벌 조선기업 시동

도크에 바닷물이 채워져 벌크선이 위용을 드러내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어 물을 담아왔던 게이트가 열리고, 진수를 기다리던 벌크선에 300t급 예인선 한 척이 밧줄을 연결했다. 30분 후 거대한 벌크선은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도크 밖으로 미끄러져 나왔다. 대한조선 직원들과 인근 주민들, 견학온 조선대 선박해양학과 학생 등 수백명의 환호가 터졌다.

지난 11일 해남군 화원면에 위치한 대한조선 해남조선소 1도크에서 첫 선박인 'HN-1001'호의 진수식이 진행됐다.

'HN-1001'호는 노르웨이 골든오션그룹이 대한조선에 발주한 8척의 벌크선 가운데 첫번째 선박이다. 길이 279m, 폭 45m의 제원을 지닌 17만500t급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으로 일반 축구장 3개 크기의 규모를 자랑한다.

도크내에서 건조가 완료된 'HN-1001'호는 이날 진수 후 안벽으로 옮겨져 한달여 동안 마무리의장작업을 거쳐 오는 5월말 선주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조선은 지난해 8월 해남조선소 1도크 가동에 들어가 뒤 예정된 계약기간 내에 선박을 인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벌크선은 국제 해상오염방지협약(MARPOL) 뿐만 아니라 국제선급연합회(IACS)에서 규정한 공통구조규칙(CSR) 기준들을 모두 충족시킨 친환경시스템으로 건조와 신생조선소의 대한조선의 기술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조선 직원들과 해남 군민들이 지난 11일 해남조선소 1도크에서 17만500t급 벌크선 'HN-1001'호의 진수를 기다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축구장 3개 크기의 'HN-1001'호 작년 8월 1도크 가동 후 첫 작품 2010년까지 매출 3조4천억 목표

김호충 대한조선 사장은 "첫 선박의 진수를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대한조선의 조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순탄한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가물막이 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부지 굴착작업에 돌입했다. 길이 460m, 폭 110m의 2도크는 올 말까지 완공해 내년부터 선박건조에 들어간다. 또 대한조선의 두번째 블록 전문 공장인 태전중공업도 대불공단에

서 5월말 가동을 기다리고 있다. 태전중공업은 연간 15만의 블록을 생산, 현재 가동중인 대한중공업 생산능력의 150%를 넘는다.

박재영 대한조선 부회장은 "올해 1조1천억원의 매출을 힘입어 3개의 도크가 가동되는 2010년에는 3조4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며 "4개의 도크가 모두 가동되는 2011년에는 630만㎡(190만평) 부지에 289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의 연간 건조능력을 갖춰 세계 정상급 조선소로 도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조선은 지난해 말까지 17만~18만급 벌크선 43척, 35억8천만달러 규모의 수주했으며 올해 수주 규모를 42억달러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광주·전남 중소기업 애로 "원자재값 상승" 꼽아

광주·전남 중소기업체들은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을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강영태)에 따르면 106개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경영애로 요인을 묻는 설문조사(복수응답)를 한 결과 77.8%가 '원자재가 상승'을 들었다.

이어 인건비 상승(53.5%), 내수부진(49.5%), 판매대금 회수지연(41.4%), 자금조달 곤란(36.4%), 업체간 과당경쟁(36.4%)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 중앙회 관계자는 "원자재가 올 들어 3개월째 고공행진을 하며 따라 중소기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주말농장 2곳 개장 광주·전남농협지역본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와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사진)가 지난 12일 각각 담양군 수북면 오정리와 광주지 북구 장동동 해피농장에서 주말농장 개장식을 가졌다.

이날 고객들은 분양된 농장에 상추 등 모종심기와 솟갓·시금치·열무 등 씨앗을 파종하며 농업의 소중함을 되



새겼다. 농협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농의 소독 향상과 도시민들의 농촌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내 가족농장 갖기 운동에 도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광주·전남 미분양 1만2천가구

주택시장 침체 가속화 ... 전국적으로 13만가구 육박

광주·전남 등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지난해 전국의 미분양아파트가 12년여 만에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12만9천65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6월(13만529가구) 이후 11년8개월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이처럼 미분양이 쌓인 것은 2006년 이후 계속된 지방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수요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됐

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밀내내기식' 분양이 잇따른 것도 미분양 적체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에는 1만2천154가구의 미분양물량이 쌓여 있다. 이는 지역에서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로,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4천462가구)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만1천17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1만5천638가구) ▲충남(1만4천888가구) ▲

경남(1만4천400가구) ▲부산(1만2천184가구) 등의 순이었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85㎡이상의 중·대형 미분양이 6만8천208가구로, 한 달새 5천920가구 늘었다. 반면 소형주택인 60㎡이하의 미분양은 5천345가구로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다.

광주·전남도 소형주택인 60㎡이하 미분양이 187가구에 그친 반면, 85㎡이상의 중·대형 미분양은 5천532가구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광주시, 북미 480만달러 수출 협약

시장 개척단 11건 양해각서

광주시가 북미 지역에서 480만 달러 규모의 수출 물량을 확보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진 북미 시장개척 활동에서 남품 계약 1건과 거래 양해각서(MOU) 11건을 맺었다. 시는 올들어 처음으로 파견한 시장개척단이 이같은 성과를 거둬 따라 북미 시장에서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의 중견 광통신회사인 휘라포토닉스사는 미국 타이포토닉스사에 80만 달러 규모의 광(光)분배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또 친환경제품 제조사인 형성테크

(주)가 221만5천 달러, LED조명기기 생산업체인 라이텍코리아(주)가 8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4개 업체가 총 400만5천달러 규모의 MOU를 맺었다.

시는 이번 시장개척 활동에서 세계 정보기술(IT) 시장의 중심지인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에게 광주 지역 제품의 우수성을 인식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신기 광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중소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 본격 지원

광주시·특허청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광주시와 특허청의 공동사업인 '2008년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의 수행기관으로 광주지식재산센터(구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회장 고정주)가 선정돼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을 본격 지원한다.

컨설팅사업은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 문제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특허청이 지난해 12월 심사를 거쳐 광주지식재산센터를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센터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특허정보 컨설턴트와 특허사법화 컨설턴트 2명을 상주시켜 특허 아이디어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권리화에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특허와 관련된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특허정보에 관한 컨설팅 ▲특허 스타트업 육성 ▲특허컨설팅 선행기술조사 ▲국내 출원비용 및 시뮬레이션 제작지원 등이 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광주·전남 등 공공임대 작년 14만여가구 공급

최근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광주·전남 등 국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은 14만6천56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에 비해 31% 늘어난 것으로, 임대주택 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이처럼 임대주택 건설이 활기를 띤 것은 미분양주택 적체와 민간아파트의 고분양가 추세 등이 맞물리면서 '내집 마련' 대신 임대주택을 선택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광주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재고임대주택(임대중인 주택)은 8만6천494가구에 달한다. 이는 2006년(7만5천904가구)보다 14%(1만590가구) 증가한 것으로, 지역 수요자들의 임대주택 선호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전국의 재고임대주택은 133만4천951가구로, 총 주택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임대주택 규모는 20%대인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못미치지만 1998년(59만3천300가구) 이후 10년 만에 두 배에 달할 만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 재고임대주택은 민간임대 47만8천900가구, 영구임대 19만900가구, 국민임대 15만6천900가구 등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MBC 문화방송**

**행산·장가제**

무인 + + **행주 필선 직형**

7000년 4월 14일 ~ 5월 17일 (매주 목요일)

15 **행주 필선 직형** ₩150,000 ~ ₩400,000

12 **행주 필선 직형** ₩100,000 ~ ₩300,000

10 **행주 필선 직형** ₩80,000 ~ ₩200,000

5 **행주 필선 직형** ₩50,000 ~ ₩100,000

무인 + + **장사 장가제 직형**

7000년 4월 14일 ~ 5월 17일 (매주 목요일)

15 **장사 장가제 직형** ₩150,000 ~ ₩400,000

12 **장사 장가제 직형** ₩100,000 ~ ₩300,000

10 **장사 장가제 직형** ₩80,000 ~ ₩200,000

5 **장사 장가제 직형** ₩50,000 ~ ₩100,000

광주·전남·북 유영여행사 판매: 광주MBC 문화방송 사무실

문의: (06)226-6070